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김성수 (전 고신대학교 총장)



오늘날 기독교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외적으로는 국가의 통제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세속적 문화와 이념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구성원의 빈약한 세계관적 기초, 교권의 위협, 그리고 빈약한 시설과 재정 문제 등의 시련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성과 특성화를 강조하는 교육정책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독교대학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고

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의 재정재원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양성에 우선적일 수밖에 없으니 신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독교대학은 연구 프로젝트 수주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독교대학이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대학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대학들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 개화기에 선교사들이 설립할 당시에는 우수한 기독교대학이었지만 지금은 기독교대학의 특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유명 사립대학들, 아직도 교목실과 채플, 종교적 특강, 교양성경 과목의 개설 등을 통해 설립자의 신앙과 설립정신을 계승하고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독교대학들, 그리고 목회자 양성의 신학교로 설립되어 점차 종합대학교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신학적 특성이 강하여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신학대학의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기독교대학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보다는, 대학종합평가에서 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를 홍보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 충족에 급급해 있다. 일부 지방 기독교대학의 경우는 정원미달사태를 막기 위해 몇 번에 걸쳐 추가로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 학생정원은 겨우 충족시켰지만 이들에게 전공과목을 강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교수들의 토로가 들리고 있다. 기독교계를 향해 기독교대학임을 표방하는 일부 대학들의 홍보도 기독교인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지책으로 기독교대학임을 홍보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런 유형의 기독교대학들은 일반 고등학교를 상대로 입학홍보를 할 때 채플이나 기독교적 교양과목개설과 같은 기독교대학의 부가적인 특성은 절대로 홍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고등교육을 향한 한 가닥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대다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보다

대학종합평가에서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를 홍보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 충족에 급급해 있다.

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교육과 학문 운동을 통해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려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소수의 헌신된 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기독교대학들과 심지어는 기독교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세속대학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바람직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기독교대학은 단순히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거나, 그러한 학과목에 기독교적인 가치나 활동을 추가하는 대학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학문의 종교적 뿌리를 드러내고 학문 자체를 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가 학습 분위기에 단순히 스며드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학문을 형성하는 종교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모든 강의실이 종교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물



학, 심리학, 교육학, 역사학의 가르침을 종교과목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학문의 내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의 본질과 구조를 지키면서 학문 자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교육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소위 "중립적"인 사실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단순히 추가하거나,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는 일보다는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학문을 보는 학자"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 활동에 종사하는 학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좋아한다.

구성원의 헌신이 정체성 유지의 관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의 비전과 가치를 향한 구성원들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

상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전공분야를 기독교적 신앙과 관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기독교대학에 봉직하는 교수들은 경건성과 학문적 탁월성을 동시에 지니고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이 기독교인이면서 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학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교수진이 심오하게 헌신되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기독교대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교수 채용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의 학생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면학과 신앙적, 인격적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공부과정을 단순히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기독교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하신 일생의 과제를 찾도록 힘쓰며 그 일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직원 역시 자신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그분의 나라가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확장되어 감을 확신하면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이사회는 반드시 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해 있는 사람들도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학교의 기본적인 종교적 방향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교수와 행정요원들을 선발하며, 교육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들을 공급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인가, 훈련장인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대학을 온실처럼 생각한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단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기독교대학의 일차적 과업은 기독교신앙과 교리를 주입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반대나 비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본질상 종교적이며 교육과 학문 활동도 종교적이라면,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만이 유일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형태의 교육과 학문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이 직면하는 문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을 수용하

여 교육과 학문의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즉 신앙과 학문은 언제나 통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기독교대학이 제기해야 하는 질문은 어떠한 신앙을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와 학문’ 또는 ‘신앙과 학문’이 아니라 종교 대 종교, 과학 대 과학, 신앙 대 신앙, 학문 대 학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이퍼(A. Kuyper)는 두 종류의 진리와 두 종류의 학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중생자와 비중생자)과 두 종류의 원리(하나님중심원리와 인간중심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진리는 하나이며, 따라서 갈등은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상이한 원리에 있다고 보았다.

카이퍼에 의하면 기독교는 항상 갈등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현재 격렬하며 앞으로도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두 원리의 갈등이다. 즉 인간 중심적 원리와 하나님 중심적 원리,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지혜와 신적 계시의 갈등이다. 이 갈등은 대학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자는 이 갈등을 부인하거나 평가절하, 또는 우회해 갈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세상에 대하여 보다 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잘못된 원리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론적인 대결을 준비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슬로건 보다는 실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실천적인 삶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독교대학의 의학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해서 의료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의료인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의료 선교사 양성을 정체성으로 표방하기에 앞서 생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의료인, 의료쓰레기문제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대학을
온실처럼 생각한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단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기독교대학의 일차적 과업은
기독교신앙과 교리를 주입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반대나 비판이 아
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한 청지기적 소명의식에서 접근할 줄 아는 의료인,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씨를 찬양할 줄 알
며 자신이 탐구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할 줄 아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의사의
양성이 기독교대학의 의학교육이 성취해야 할 교육
목표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학문영역에도 공히 적용
되어야 만하는 본질적 원리이다.

기독교대학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신앙이라는 확고한 기초를 상실해 버
리거나 아니면 학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떠한 경우
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대학이라고 부르는 어

렵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삶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신앙은 주일 하루 또는 인간 삶의 어느 한 영
역에만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방향 지우며 동기 지우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기독교적 신앙을 확고한
기초로 삼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교육
과 학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인적, 물적 자원 면에서 많은 것을 필요
로 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다른 어떠한 대학들보다
도 더 낳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좋은 시
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의 모습을 상기할 때 항상 열악한 시설 환경 속
에서 험의적이고 도그마적인 의미의 경건을 강조하
는 소리만이 연상되어져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실천적으로 증
거하면서 교육과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신앙공
동체가 되어야 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7/15일자 발행)



글 | 김성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남양주공화국 포츠
스트럼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1977년부
터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총장을 역임하였고, 기독교세계관학술 동역회 이
사로 봉사했다. 지금은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Evangelia University 부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다.